



男·女, 편견·차별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꿈꾸다

광주시 다음달 6일까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청 일원서 전시회·영화상영·토론회 등 다채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양성평등사회를 꿈꾼다.

광주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양성아~평등아~함께 가자!'를 주제로 광주시청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포럼, 전시회, 영화 상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우러진 행사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지금까지 여성주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던 기획이다. 올해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사명이 변경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대표 문진수)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백희정),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31일 시청사 시민숲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광주가 바뀐 것들, 스웨덴 일·가정 양립 사진, 초등생들의 양성평등 그림 공모 수상작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

가족과 여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화도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은 여성 영화의 대표작으로 1996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안토니아스 라인'(1일 오후

2시 대회의실)과 다이나 레인 주연의 '투스카니의 태양'(4일 오후 2시 무등홀)이다.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2일 오후 2시 무등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강연아(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명희(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종합상담 팀장)씨가 각각 '광주 지역 직장맘 고충 실태 및 정책 욕구 분석',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진숙(광주시 의원), 김미경(광주대 교수), 강영숙(광주시 여성 정책 담당)씨가 참여한다.

그밖에 3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을 실천한 강연숙·유구하 부부, 이창희·정찬운 부부, 이귀숙·장성덕 부부, 김민자·박영준 부부, 문인순·조구훈 부부와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한 3개 단체, 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선 2개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또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이 '미래 사회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시청 시민광장에서는 ▲꽃할배! 건강한 식생활 교실 ▲양성평등 캘리그래



'양성평등주간'에 상영되는 여성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피(Calligraphy)전 ▲폭력예방 이미지 포스터전 ▲성평등으로 Go Go-일상문화 바꾸기 해보면 캠페인 등 홍보 및 체험을 위한 35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한편 광주시는 UN여성기구 히포쉬(HeForShe)캠페인에 동참한다. 히포쉬 캠페인은 유엔여성(UN WOMEN)이 추진하는 성평등 연대운동으로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려 이를 해결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

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유명인사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많은 남성들이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시장을 비롯 남성 간부들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중이다.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 기간인 3일에는 히포쉬 캠페인 인증샷 촬영 등 히포쉬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062-613-22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낙청 “신경숙 표절 단정지를 수 없다”

“의도적 베껴쓰기 등의 못해” 문학계 안팎 파장 일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문학적 유사성은 있지만 의도적 베껴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창작과비평 백낙청 편집인이 작가 신경숙의 표절 의혹에 대해 "단정지를 수 없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의 표명이 문학계 안팎에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8일 창작과비평사 등에 따르면 백 편집인은 27일 심야에 올린 페이스북 게재글을 통해 "표절 혐의를 받은 만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의도적인 베껴쓰기, 곧 작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장비의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백 편집인이 장비를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으며 그동안 신 작가 표절 의혹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한다.

앞서 장비가 밝힌다는 '창작과비평'은 최근 가을호에서 백영서 편집주간의 글을 통해 "신경숙씨의 작품 '전설'이

원로문학평론가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비의 입장에 대해 "스스로 (신경숙) 작가와 너무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학 전문 계간지 '실천문학'도 가을호에서 '표절 문학권력 대안'을 주제로 다양한 기획 글을 실어 한국 문학 폐쇄성에 일침을 놓았다.

작가 김남일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찰과 진단이 아닌 처방과 수술"이라며 "한국문학에 요구되는 것은 반성을 방자한 자기혐오가 아니라 전면적인 변혁"이라고 밝혔다. 실천문학은 문학제도의 폐쇄성과 경직성, 이른바 '점목의 카르텔'을 내놓는 동시에 "문화예술 전반에서 자기 갱신의 불능 상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1살소녀 소리꾼 유송은 '홍보가' 3시간 완창 무대



9월 1일 광산문예회관

11살 소녀 소리꾼이 '홍보가'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3시간에 이르는 대장정이다. 유송은(사진) 양이 다음달 1일 오후 5시 광산문예회관에서 '미산계 박초월류 홍보가' 완창 무대를 갖는다.

5살 되던 2011년 박정아씨에게 소리를 배우며 국악계에 입문한 송은양은 전국 어린이판소리창중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대상을 받았고, 올해 초에는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에 올랐다. 또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 KBS '열린음악회' 등에 출연, 국악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정대희 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공연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강예진, 박근영 고수가 함께 한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김오현 씨의 가야금 병창과 민요장단, 제25회 경주신라문화제 국악부문 대상 수상자 서영호 씨의 무대도 마련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이스 길병민, 광주성악콩쿠르 대상

2위 소프라노 최은혜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성악가를 뽑는 '2015광주성악콩쿠르'에서 베이스 길병민(사진)씨가 1위(상금 15000만원)를 차지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길씨는 지난 29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이 콩쿠르 본선에서 가곡 조두남 곡 '새타령', 슈베르트의 '고독에 잘 잠기는 사람' 등 3곡을 연주 최고 점수를 받았다. 2위(상금 700만원)는 소프라노 최은혜(이화여대 음악과 출), 3위(300만원)는 소프라노 이해진씨(서울대 음악과 재학)가 각각 받았다.

광주·전남 출신자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둔 출전자에게 주는 향토상(상금 200



만원)에는 바리톤 이원섭씨, 고희상(상금 100만원)은 소프라노 최은혜씨가 받았다.

또 정율성 가곡상(상금 100만원)에 매조소프라노 정상희씨, 우리가곡상(상금 100만원)에는 바리톤 김기훈씨가 선정됐다. 반주상(상금 100만원)은 최은혜씨의 연주에 반주를 맡은 서현일씨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길병민씨는 '정율성음악축제' 공연에 출연하며 본선 입상자 12명은 이탈리아 '클라우디오 아바도 국립음악원' 무시험 입학 특전이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직 내려놓겠다”

고액연봉·비리의혹 등 홍역 서울시향 측은 재계약 설득

지휘자 정명훈(62)이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예술감독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향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올해 연말 예술감독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재계약 협의와 관련, "재계약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예술감독은 올해 말까지 체결된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이후에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서울시향은 설명했다. 다만, 청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정이 잡힌 내년 공연은 지휘할 예정이다.

정 예술감독은 지난해 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

표의 직원 성희룡·막말 논란 와중에 불거진 고액 연봉 논란과 비리 의혹으로 그동안 홍역을 치렀다. 당시 박 전 대표가 예술감독인 정 지휘자의 연봉과 처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정 지휘자의 개인 윤리 문제로 번지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향은 향후 정 예술감독 설득 노력을 지속하면서 서울시향 이사회, 서울시의회와 조율해 재계약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향뉴스

서구문화원, 9월 2일 애송시 낭송경연대회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주최하는 제12회 전국애송시 낭송경연대회가 오는 9월 2일 오후 1시 서구빛고을극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대상 50만원, 금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상

품이 수여되며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낭송가 자격증과 특별 공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관람과 참여는 모두 무료다. 문의 062-681-41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의 광장/즐거움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주동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홀몰러스 건너편 www.geumsoo.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